

재미 한인 1세대가 상상한 19세기 역사, 〈홍중래전〉

황재문*

- I. 머리말
- II. 인물의 설정과 배치
- III. ‘홍경래의 난 이후’의 재구성
- IV. 역사적 사건의 재해석과 활용
- V. 맺음말

<국문초록>

<홍중래전>은 재미 한인 1세대 작가 전낙청이 1920년대에 창작한 장편 소설로, 문체와 형식 면에서는 고전소설에 가까운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소설은 홍경래의 난이 끝난 이후로부터 갑신정변 직후까지의 한국의 역사를 다루었는데, 이 역사는 정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홍경래가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홍경래의 뜻을 계승하려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면’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상상된 역사이기 때문이다. <홍중래전>에서 19세기 역사를 새롭게 상상한 방식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물의 설정과 배치이다. 홍경래가 난의 실패 이후 조선을 떠나 중국에서 태평 천국의 거사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설정했기 때문에, 작품의 주된 서사를 이끌어갈 홍경래 이후 세대 인물들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홍중래전>에서는 서북인들 가운데 홍중래 이외에도 그를 보좌하는 다양한 개성의 인물들을 등장시켰고, 충청도의 사회적 모순을 대변할 만한 인물들도 함께 설정했다. 충청도의 가공인물을 주요 인물로서 등장시킨 점은 전작인 <홍경래전>에서는 볼 수 없는 면모여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서울의 대관들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

실존 인물을 상당수 등장시키되 때로는 활동 시기나 이력을 바꾸기도 했다. 기생을 포함한 부녀들을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인물로 등장시킨 점 또한 특징적인데, 특히 ‘홍군영웅’으로 일컬어진 옥피래는 새로운 인물형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는 역사의 재구성이다. <홍중래전>이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두고 구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소설에서의 역사 또한 중국으로 떠난 홍경래의 후일담과 홍경래 이후의 개혁 조직 이야기의 두 방향으로 구성된다. 우선 홍경래의 후일담은 압록강 건너편에 권토중래를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려 하였으나 풍랑으로 실패하고 결국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핵심 인물인 석달개를 제자로 키웠고 지금은 은거하는 석달개의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홍중래를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의 이야기는 인재의 규합, 개혁의 의지를 가진 유력자를 활용하는 ‘권변’의 계획, 무력을 사용하는 ‘강력’의 계획의 순서로 구성된다. 셋째는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고 상상된 역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홍경래 이후의 민란들,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 등의 조선의 역사적 사건뿐 아니라 태평천국, 조선과 청의 외교 현안과 같은 외국의 역사적 사건도 활용하는데, 작품의 내적 논리에 따라 적지 않은 변형을 시도한다. 상상된 역사로 완성된 <홍중래전>을 공식적인 역사와 비교해 보면, 과정은 다르되 결과는 같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홍중래전>은 ‘연의’와 ‘대체 역사’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닌 역사소설로 이해될 수 있다.

핵심어: 홍중래전, 홍경래, 홍중래, 이민문학, 역사소설

1. 머리말

<홍중래전(洪重來傳)>은 홍경래의 난이 끝난 이후로부터 갑신정변 직 후까지의 역사를 다룬 소설이다. 격변하는 19세기 조선의 역사를 그려낸 일종의 역사소설인 셈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려진 역사는 정사 혹은 널리 알려진 역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사와는 완전히 다른 허구적 설정을 바탕으로 허구적인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어서, 일반적인 역사소설의

‘허구’를 생각한 독자를 당황하게 할 정도이다. 여기서 허구적인 설정이란 일종의 ‘가정’이니, <홍중래전>에서는 ‘만약 홍경래가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 홍경래의 뜻을 계승하려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면’과 같은 가정을 발판으로 200자 원고지 2,200여 매에 이르는 장편의 ‘새로운 역사’를 그려낸 것처럼 보인다. 이는 우리 문학사에서 그리 흔한 사례는 아닐 것이다.

<홍중래전>은 평안도 정주 출신의 하와이 이민 1세대 전낙청(1876~1953)의 작품이니, 작가의 이력 또한 일반적이지는 않다.¹⁾ 전낙청은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동과 자녀 교육에 힘쓰면서 최소 8편의 소설과 6편의 논설을 썼는데, 그의 유고는 현재 미국 남가주대학(USC)에 소장되어 있다.²⁾ 최근에는 4편의 소설과 3편의 논설을 수록한 선집이 간행되어 일부 작품이 소개되었는데, 장편인 <홍중래전>은 이 선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³⁾ 전낙청의 유고가 소개된 이후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⁴⁾ 이를 통해 전낙청의 작품이 대체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집필되었음이 밝혀졌고 고향 또는 고국의 역사 및 풍속과 함께 이민지 미국에서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
- 1) 전낙청의 생년은 1875년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USC 도서관의 전임 관장 Kenneth Klein에 의해 1876년으로 확인되었다. Klein은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에서 ‘1876년’의 생년 표기를 찾아낸 바 있으며, 2023년에는 묘비에도 1876년생으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 2) 2023년 USC 도서관에서는 ‘Nak Chung Thun Archive’를 통해 작가 사진과 함께 작품 원문을 공개하였다. (<https://impa.usc.edu/archive/Nak-Chung-Thun-Archive-2A3BF1Q04WML5.html>)
 - 3) 전낙청 저, 황재문 편역, 『구제적 강도: 전낙청 선집』, 소명출판, 2020. <오월화>, <구제적 강도>, <삼각연애묘>, <실모지묘(失母之猫)>, 『경제적 열애』, 『미주 동포에게 올리는 글』, 『인생관』의 7편이 수록되어 있다. 유고의 발굴 경위와 전체 작품의 개요에 대해서는 선집의 서문을 참조할 수 있다.
 - 4) 이지영, 『20세기 미주 이민 서북인의 홍경래란에 대한 기억: 전낙청의 <홍중래전>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15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황재문, 『<구제적 강도> 연구: 1세대 재미 한인 1세의 체험과 문학적 혼종성』,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이지영, 『반란에 대한 기억 혹은 기대』, 『고전과 해석』 26, 고전문화한문학회, 2018; 이지영, 『20세기 초 미주 한인 소설에 나타난 판소리 관련 서술에 대한 고찰』, 『판소리 연구』 48, 판소리학회, 2019; 전우형,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존: 미주 이민자 전낙청의 사랑에 관한 한 상상』, 『대중서사연구』 26-2, 대중서사학회, 2020; 이지영, 『20세기 초 미주 한인 소설 <부도>에 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8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황재문, 『초기 재미 한인 문학과 변혁의 구상: 전낙청의 <홍중래전>, <홍중래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황재문, 『전낙청 문학에서의 ‘연애’의 의미』, 『한국학논집』 82,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21.

전낙청의 소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배경과 형식 및 문체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두 부류가 공존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인 형식과 문체를 활용하여 고향 또는 고국의 역사와 풍속을 그려낸 작품이 있는가 하면, 전통과 근대가 섞인 혼종적인 형식과 문체를 활용하여 이민지를 비롯한 세계에서의 역사와 인간상을 그려낸 작품이 있다. 전자가 ‘장편 고전소설’에 속한다면 후자는 ‘중단편 근대소설’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으니,⁵⁾ 전낙청은 이처럼 이질적인 작품을 남긴 드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작품들, 즉 ‘장편 고전소설’의 형식과 문체를 취한 작품으로는 각각 원고지 2,000매 이상 분량의 장편인 <홍경래전>, <홍중래전>, <부도>가 있다. 이 작품들은 인물과 시공간적 배경이 서로 이어지므로 일종의 연작이라 할 수도 있는데, 주제 의식의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⁶⁾ 세 작품 모두 19세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역사와의 관계에서도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홍경래전>이 역사적 사건인 ‘홍경래의 난’을 서북인의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다면, <부도>는 개인적 문제인 ‘연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공적 역사는 배경으로만 활용한다. 반면에 <홍중래전>은 다수의 가공인물을 실제 역사의 시공간 속에 등장시키면서 ‘가정’에 기반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홍중래전>에서 그린 역사는 역사서에 기록된 역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물은 역사에 대해 작가 나름의 관점을 세워 진지하게 사색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역사를 이끌어갈 인물을 설정하고 역사 자체를 재구성하며 한편으로는 실제의 역사를 활용하는 작업을 거친 성과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홍중래전>이 역사를 상상한 방식을 검토하고, 그것이 문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⁷⁾

5) 개별 작품을 ‘고전소설’이나 ‘근대소설’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각각의 작품에서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된 측면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일종의 혼종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황재문, 「<구제적 강도> 연구: 1세대 재미 한인의 체험과 문학적 혼종성」, 371~380면 참조.

6) 황재문, 「초기 재미 한인 문학과 변혁의 구상: 전낙청의 <홍경래전>, <홍중래전>을 중심으로」, 46~48면; 황재문, 「전낙청 문학에서의 ‘연애’의 의미」, 154면.

7) <홍중래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반란 혹은 변혁과 같은 작품의 주제 의식이 구현되는 양상에 주목할 바 있다. 이지영, 「반란에 대한 기억 혹은 기대」; 황재문, 「초기 재미 한인 문

II. 인물의 설정과 배치

<홍중래전>에서는 19세기 역사 기록과 어긋나는 두 가지 설정을 발견할 수 있다. 홍경래가 죽지 않고 정주성을 빠져나와 중국에 건너갔고 석달개의 스승이 되어 태평천국의 난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이며, 홍경래의 난이 진압된 이후에 서북인들은 다시 조선의 개혁이라는 홍경래의 뜻을 계승하는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했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는 중국으로 떠난 홍경래가 작품의 중심인물이 될 수 없으며, 작품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다. 그 인물은 홍경래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인물, 즉 ‘홍경래개[洪] 다시 온다[重來]’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홍중래이다.

그렇지만 <홍중래전>은 홍중래 한 사람의 힘을 절대시하지는 않는다. <홍경래전>에서 근대적인 회의체와 유사한 회합을 그려냈던 점을 고려하면,⁸⁾ <홍중래전>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다수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홍경래를 계승하려는 홍중래의 동지들이 주로 서북인들인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나, <홍중래전>에서는 황철수를 비롯한 ‘충청도의 인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 홍중래를 만난 홍경래가 경인(京人) 즉 서울 사람을 믿었던 점을 자신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⁹⁾ 서울 사람들 또한 여기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홍중래전>이 서북인의 기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서북인만으로 거사를 도모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로운데,¹⁰⁾ 이는 <홍중래전>이 <홍경래전>보다 진전된 면모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인물들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하에서는 지역별로 나누

학과 변혁의 구상: 전낙청의 <홍경래전>, <홍중래전>을 중심으로.,

8) <홍경래전>에서는 사회, 서기, 회의록, 개회 선언, 일지 낭독, 회의록 확인 등과 같은 절차를 갖춘 ‘대회’의 모습을 그려낸 바 있는데, 이는 미주 한인의 ‘회합’인 국민회와 유사한 면모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황재문, 『초기 재미 한인 문학과 변혁의 구상: 전낙청의 <홍경래전>, <홍중래전>을 중심으로』, 61~63면 참조.

9) 위의 글, 65~66면.

10) <홍중래전>에서도 다른 지역의 인물들은 배제하고 서북인만으로 거사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강하게 제기된다. 그렇지만 이는 소수 의견이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현되지는 않는다.

어 살펴보되, 우선 남성 인물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¹¹⁾

서북 인물의 중심에는 회산(懷山) 홍중래, 삼낭(三囊) 오가구(吳家駒), 신야(莘野) 윤자형의 세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은 때로는 별호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들의 이름과 별호에서는 각각의 성격과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¹²⁾ 홍중래는 거대한 홍수가 다시 와서[重來] 산을 품을 만하다[懷山]고 기대될 만큼 큰 포부를 지닌 지도자이다. 오가구는 오씨 가문의 인재라는 뜻이요, 삼낭 즉 세 가지 주머니는 ‘문장에 뛰어난 금낭(錦囊), 의술에 뛰어난 청낭(靑囊), 지략이 뛰어난 피주머니(智囊)’의 뜻으로 풀이된다. ‘신야(莘野)’는 이윤(伊尹)이 은거하며 농사짓던 곳이니, 윤자형이 이윤과 비길 만한 인재라는 뜻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외지인인 아버지와 과부 무당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가구는 의원으로 이름을 얻고 인재를 모으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거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윤자형은 재정 문제를 담당한다.

실제 거사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문무 관리로 등장한다. <홍중래전> 초반부에 등장하는 거사 계획의 출발점은 ‘다수 서북인의 과거 급제와 등용’인데,¹³⁾ 그 결과로 홍중래 일파의 상당수는 문무 관리로 등용된다. 그렇지만 문관과 무관의 상황은 같지 않았다.

<홍중래전>에서 서북 출신의 문인들은 과거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인다. 갑자년(1864) 경과(慶科)에서는 5명이 급제하고, 을축년(1865) 식과에서는 12명이 급제한다. 이들은 경기의 선비들을 압도하는 실력과 기백을 보인다. 이들 가운데 큰 활약을 하는 인물은 정주 출신의 이주경과 백사걸(白士傑)

11) 역사소설 연구에서는 실존 인물과 가공인물로 나누어 인물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존 인물이 많지 않고 그나마도 허구화된 사례가 많은 <홍중래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이지는 않을 듯하다. 여러 지역(공간)의 이야기기가 각기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출신 지역이 인물의 성격과 기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므로, 여기서는 지역별로 인물(군)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제9장에 그려지는 서북 명사들의 ‘청비여울[淸飛灘] 모임’ 장면에서는 각기 2구의 ‘시율’을 읊는데, 이 ‘시율’에서도 각각의 이름자나 별호의 뜻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장면은 서북의 ‘가공인물’이 지닌 성격과 역할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13) 과거제에 대한 <홍중래전>의 태도는 <홍경래전>과는 대비된다. 이는 ‘일물평등’이라는 목표와 연관된 것으로도 이해되는데(황재문, 『초기 재미 한인 문학과 변혁의 구상: 전낙청의 <홍경래전>, <홍중래전>을 중심으로』, 57~58면), 한편으로는 이민지에서 자녀와 조카의 학교 교육의 성과를 지켜보았던 작가 전낙청의 경험과 연관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다. ‘대원군의 동종(同宗)’인 이주경은 대원군을 움직여 ‘사색’ 즉 양반을 공격하게 만들고, ‘선비이면서도 인걸’인 백사결은 간관(諫官) 또는 의금부 관료로서 ‘사색’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다. 백사결은 <홍경래전>에서 홍경래의 스승으로 등장한 ‘백선생’ 집안의 인물이기도 한데, 문관이면서도 무인의 기질을 보여 “난잡한 문관”으로도 언급된다.¹⁴⁾

무인으로는 공양백, 어대악, 마성한, 독고량의 사중군(四中軍)과 장구적, 동방청, 임기호, 변수호의 사변장(四邊將)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갑자년 경과에서 압도적인 무예 실력을 보였음에도 출사하지 못하지만, 결국 병인양요의 전공으로 낮은 벼슬을 얻어 영문(營門)의 중군과 네 변진(邊鎭)의 영장이 된다.¹⁵⁾ 8명의 서북 무인은 군사를 이끌고 거의(擧義)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 대관의 서자(庶子) 즉 경인의 피가 섞인 어대악과 마성한은 대의를 외면하기도 한다. 이처럼 8명의 무인은 서북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각기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갖춘 것으로 설정된다.

8명의 무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무예를 지닌 인물은 공양백(弓兩百)이다. ‘양백’은 활을 쏘아 두 번 모두 만점을 받았다는 데서 유래한 별호이며, 이름은 ‘답’이다. 공양백은 벽동(碧潼) 벽단진(碧團鎭) 진속(鎭屬)의 후예여서 이괄의 난과 홍경래의 난을 거치면서 서북인들에게 가해진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처지에 있었다고 설정된다. 서북 무인들에게는 검술 수련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변방의 진속만은 예외적으로 검술을 익힐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이다. 공양백이 실전적인 무예를 전수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공양백은 노모와 여동생을 이끌고 유리걸식하다가 정주에 이

14) <홍중래전>, 144면. 【정량】 니가 선비라 구운몽(九雲夢), 서상기(西廂記)만 본 것이 안이고 금병매(金瓶梅), 옥괴리(玉嬌梨)집을 다 보아스니, 정담(情談)에는 무능(無能)할 것 없다. 【추란】 그러시면 란잡(亂雜)한 문관이올시다.” <홍중래전>의 인용문 표기는 USC 소장본의 면수 표기에 따른다. USC 소장본에는 상단에 면수 표기가 있는데, 106면과 107면은 실수로 두 번 표기되어 있다.

15) <홍중래전>에서 말하는 “사영문”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순무영이다. 훈련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은 모두 오군영(五軍營)에 포함된 한양 방어 군영이지만, ‘순무영’은 전쟁이나 반란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되는 군영이어서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공양백은 훈련원의 중군, 어대악은 순무영(巡撫營)의 중군, 마성한은 어영청의 중군, 독고량은 금위영의 중군이 되며, 장구적은 운봉영장(雲峯營將), 동방청은 충주영장(忠州營將), 임기호는 삼척영장(三陟營將), 변수호는 함경북도 육진(六鎭) 도영장(都領將)이 된다.

르는데, 오가구로부터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얻는 등의 신세를 지고 결국 ‘활만 쓸 줄 아는’ 서북 무인들의 교사가 된다. 사실 오가구와 궁양백은 이방인 즉 이질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두 사람이 서북 인물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설정이기도 하다.

충청도 출신으로는 양극단에 놓인 인물들이 설정된다. 홍중래 일파의 대의에 공명하는 서얼이나 무인이 있는가 하면, 홍중래 일파와 대립하는 명문가의 양반이 반대편에 있다. 이들은 모두 가공인물로 추정된다. 충청도는 적서 차별, 도적, 탐관오리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묘사되는데, 두 인물군은 이런 상황의 원인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홍중래전>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인물은, 홍중래나 오가구가 아니라 충청도 무인 명문가의 서얼 황철수이다. 그는 작대기 하나로 거대한 호랑이를 때려잡을 정도의 힘을 지녔지만, 기제사 참여 문제로 육촌 적형과 다투고서 고향을 떠난다. 이후 청석령(靑石嶺)에서 도적 두목이 되어 조대비의 친척인 전 칠곡 부사나 김문(金門)의 거물인 전 경주 부윤을 징벌하고, 황간호(黃澗虎) 즉 황간의 호랑이라고까지 일컬어지며 명성을 떨친다. 무인 명문가의 후예로는 황철수의 인척인 김재호도 등장한다.¹⁶⁾ 김재호는 사진첨사(四鎭僉使) 가운데 하나인 신도진(薪島鎭) 영장이 되어 서북의 풍속을 접하고 뒤에는 관서 절도사로 부임하여 서북 인물들과 함께 변란을 도모한다. 홍중래 일파의 배후이자 우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황철수나 김재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은 송시열의 후손인 ‘산림(山林) 송천주(宋天柱)’이다. ‘하늘 또는 천리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조상의 명성을 팔아 생활하고 얼어 죽어도 것붙은 쪼이지 않는다는 식의 양반 생활에 익숙한 인물이다. 독고랑이 누이동생의 은인임을 알고서도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작은 다툼에 원한을 품고 포도대장을 겁박하여 사형을 종용하기까지 한다. 한편 송천주와는 달리 홍중래 일파에게 호의적인 양반도 등장하는데, 대원군의 당내(堂內)인 ‘풍류재상 이용직’과 이용직의 친족인 이용극 부부가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용극의 부인

16) 황철수의 부인이 김재호의 육촌 동생이다. 황철수의 처가는 충청도의 무관 가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장인은 하동부사(河東府使)를 지냈고 처남은 진도첨사(珍島僉使)를 지냈다고 했다.

은 송천주의 누이동생이니, 오빠와 누이가 전혀 다른 성품을 보이는 셈이다. 이용직은 ‘사색’에 속하면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특이한 인물이다.

서울의 인물들 가운데에는 실존 인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¹⁷⁾ 19세기의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당시 요직에 있던 실권자들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데, 만약 그들을 제외했다면 그것을 ‘19세기 조선의 역사’라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활동까지 정사의 기록 그대로 가져와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홍중래전>에서는 그들의 경력이나 나이, 활동 등을 실제와는 조금씩 달리 설정한다.

권력을 양분하던 대원군과 민중전이 그 중심에 있다면, 대원군 휘하의 이경하(李景夏), 양헌수(梁憲洙)와 민중전의 친족들이 그 주위에 놓인다. 이들을 둘러싼 주요 사건들도 언급되지만, 이들의 경력은 때로 사실과 달리 나타난다. 실제보다 많은 나이로 설정되는 민영익이나 실제보다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이경하가 그런 예가 될 것이다.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는 이경하와 양헌수를 들 수 있는데, 이경하는 특히 ‘서울 무인의 편심(偏心)’을 많이 지닌 인물로 언급된다.¹⁸⁾

신헌(申憲, 1811~1884)은 독고랑을 돕는 대관으로 등장하는데, 초명(初名)인 관호로 일컬어진다. 종제(從弟)인 신관호도 함께 등장하는데, 가공인물로 짐작된다. 포도대장 신관복이 송천주의 청탁에 따라 독고랑을 처형하려고 하니, 신관호가 설득하여 처벌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이후로는 서북 무인들의 후원자 역할을 하게 된다. 신관호 즉 신헌이 병인양요 이전에 병사한다는 설정은 홍중래 일파의 고난을 극대화하는 설정일 수 있는데, 이는 사실과는 어긋난다.

평안도 관찰사로 등장하는 박규수(朴珪壽, 1807~1876)와 남정철(南廷哲, 1840~1916)은 실제 평안도 관찰사 경력이 있는데, 시기와 활동이 맞지 않는다.¹⁹⁾ 청나라 사행에 참여하는 사신 가운데 서윤순(徐念淳, 1800~

17) 경인(京人) 즉 ‘서울의 인물’은 서울에서 태어난 인물이라기보다는 서울에서 활동한 인물을 가리킨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대관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홍중래전>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들의 고향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는다. ‘경인’으로 묶어서 공통된 기질을 부여할 뿐이다.

18) <홍중래전>, 110면. “원리 리경하는 편심(偏心)이 잇는 무인이라. 서도(西道) 늬이 장원 비교에 참여된 것을 은근이 불열(不悅)하다가 이 청(請)[정우표의 재대결 요청]을 들으니 큰 위로라.”

1859)과 이홍주(李弘胄, 1562~1638)는 사행 경험이 있지만, 활동 시기가 맞지 않는다. 다만 이들에게 실제 서북과 관련된 이력이 있다는 공통점은 확인되는데,²⁰⁾ 이들의 이름은 정주 출신인 작가에게 익숙한 것이었을 법하다. 박규수, 서염순, 이홍주는 모두 서북인들에게 호의적인 인물로 등장하며, 특히 이홍주는 초시(初試) 이래 홍중래를 인정하고 후원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밖에 ‘곰같이 힘은 세나 무예를 모르는’ 장수로 그려지는 한성근(韓聖根)과 이창렴(李昌濂) 같은 경우에는 병인양요에서 별다른 전공을 세우지 못했다고 언급되는데,²¹⁾ 이는 서북의 여덟 무인을 비롯한 가공인물들의 활약을 내세우기 위한 설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정원용(鄭元容, 1783~1873) 같은 경우에는 가공인물인 김병리의 장인으로 등장하는데, ‘영의정의 따님’이 서북의 무인에게 감사를 전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활용된 듯하다. 함께 거론되는 조만영(趙萬永, 1776~1846), 홍순목(洪淳穆, 1816~1884) 등은 활동 시기가 맞지 않으나 관직 자체는 실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어대약의 팔촌으로 호조참판 어윤중(魚允中)이 등장하는 점도 관심을 끄는데, 전송하러 나오는 장면에서 잠시 언급될 뿐이어서 ‘어씨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로 끌어들여진 것처럼 보인다.

<홍중래전>에는 수많은 기생과 부녀자가 등장한다. <홍경래전>, <홍중래전>, <부도>의 세 작품이 모두 ‘진정한 사랑[眞情]’을 추구한다는 주제 의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 이는 당연하면서도 필요한 설정이라 할 것이다.²²⁾

19) 박규수는 1866~1869년에, 남정철은 1885~1889년에 평안도 관찰사를 지냈다. 박규수의 경우에는 비슷한 시점에 관찰사로 등장시킨 썬이나, <홍중래전>에서 강조되는 사건인 ‘연조(演操) 참여’ 등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20) 서염순(徐念淳, 1800~1859)은 홍경래 난과 관련된 인물인 서춘보(徐春輔, 1766~1825)의 아들이며, 실제 1852년에 정사로 연행한 바 있다. 이때 가사인 <임자연행별곡(壬子燕行別曲)>을 남기기도 했다. 이홍주(李弘胄, 1562~1638)는 병조참판과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했으며,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21) 한성근(韓聖根)은 순무영(巡撫營) 초관(哨官)으로 병인양요에 참전하여, 문수산성(文殊山城)을 수비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창렴(李昌濂) 또한 병인양요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이들은 양헌수와 함께 실제 병인양요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이다.

22) ‘민중전’을 제외하면, 이들은 대부분 가공인물이다. 그렇지만 여러 작품에서 같은 이름의 기생이 언급되기도 하므로, 실제 모델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

<홍중래전>에서도 언급되는 ‘광충교(廣沖橋)’는 서울 기생의 근거지로 설정되는데,²³⁾ 그곳의 기생들은 서울의 대관(大官)이나 남북촌 한량들과 어울리다가 독고랑의 방문 이후 서북 인물들과 인연을 맺는다. 광충교를 대표하는 옥교(玉橋)는 독고랑, 추란(秋蘭)은 백사걸, 해월(海月)은 궁양백과 인연을 맺는데, 이 가운데 옥교와 추란은 뒤에 서북 인물들을 따라 서북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북 여인들의 기질과 성품을 체득하게 된다.

서울의 기생들이 다소 수동적이라면, 평양의 기생들은 ‘호협’하고 적극적이다. 애련, 전금, 백합, 금전 등은 ‘서북 인물’들과 인연을 맺는데, 멀리 안주나 황주까지 나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찾아다닐 정도로 적극적이다. 요즘의 경우에는 홍중래와 인연을 맺기 위해 다른 기생에게 칼을 들이댈 정도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개혁’을 위한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 서북의 인물들과 어울리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들의 적극성을 사랑의 차원에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평양 기생 애련, 전금, 백합이 거사에 실패하고 목숨을 부지한 독고랑에게 거침없이 칼을 들이대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개혁의 대의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²⁴⁾

홍중래 일파의 큰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은 옥피래(玉皮內)이다. 옥피래는 홍중래 이후의 서북 변란인 ‘청풍계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스스로 기생이 되는데, 복수의 기회를 엿보던 중에 홍중래를 만나 대의를 위해 자기 몸을 바치겠노라고 제안한다. 결국 이경하의 첩이 되어 서북 인물의 활동을 돕는데, 홍중래나 오가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스스로 적당한 인물을 찾아내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하니, 서북 인물들 사이에서 ‘홍군영웅(紅裙英雄)’으로 일컬어지게 되기에 이른다. 피래는 죽음을 앞두고 백사걸을 불러 유언을 남기는데, 이 순간에도 정세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다.²⁵⁾ 옥피래의 죽음은 홍중래

23) “광충교(廣沖橋)”는 청계천에 놓인 다리 가운데 하나인 광교(廣橋)이다. ‘광교’는 광통방(廣通坊)에 있는 큰 다리라는 뜻인 ‘대광통교(大廣通橋)’의 약칭인데, 광통교, 광충교, 육교(六橋)로도 일컬어졌다.

24) 구체적인 내용은 황재문, 『전남청 문학에서의 ‘연애’의 의미』, 152면 참조.

25) <홍중래전>, 208면. “피러가 뵈사간을 청하야 부탁하기를, ‘더원궁과 민궁(閔宮) 사이에 결투가 이슬지니, 그씨가 두 번 맞나지 못할 썩라. 힐치 마시오. 너의 부탁은 이것뿐이고, 더감의 립기호을 천거하여스나 더감의 부단성으로 단행할 것이 의문이니, 사간이 주선하야 불으

일파가 계획 변경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되니, 그 비중은 남성 인물 누구보다도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생이 아니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성도 다수 등장하는데, 서북 출신이거나 서북의 피가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서북 사람들과의 만남이 거듭된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용극의 부인 송씨나 영의정 정원용의 딸이자 김병리의 부인인 정씨는 독고랑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긴 인물들인데, 이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홍중래 일파를 돕고자 나선다. 비록 양반은 아니지만 궁양백의 동생 화일탄이 실의에 빠진 오빠를 꾸짖는 장면은 <홍중래전>에서 그려내는 이상적 여성의 면모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홍경래의 난 이후’의 재구성

<홍중래전>이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상상한 역사를 담고 있다면, 두 가지 가정에 대한 답을 작품에서 찾아보는 것이 상상된 역사 또는 상상을 통해 재구성된 역사의 면모를 확인하는 방법일 것이다. ‘만약 홍경래가 죽지 않았다면’이라는 첫 번째 가정에 대한 답은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는 ‘홍경래의 후일담’을 정리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홍경래의 뜻을 계승하려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면’이라는 두 번째 가정에 대한 답은 작품 전체를 따라가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홍경래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홍경래의 시대에도 널리 퍼져 있었으며, 특히 서북 지방에서는 20세기에도 여전히 설화를 통해 전승되고 있었다.²⁶⁾ 그렇지만 탈출하여 살아남은 홍경래가 이후 어떤 일을 했는지는

시오. ... 시가 죽게 되면 그 우름이 처량(淒涼)하고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말이 선미(善美)하
나니, 부디 나의 말을 기억하시오.’ 사간이 피리의 유언을 감수함이 그 부모의 유언보다篤重
할지라.”

26) 조선 시대의 ‘홍경래 불사설’에 대해서는 정환국, 『홍경래란을 바라보는 시선』, 『동악어문학』 55, 동악어문학회, 2010, 24~29면 참조. 서북 지방 설화에서의 사례는 1923년에 신의주고등보통학교 2학년 학생들이 조사한 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시이 마사미 편, 최인학 역, 『1923년 조선 설화집』, 민속원, 2010에 수록된 70편의 설화 가운데 3편의 홍경래 관련 설화가 보이는데, 여기에는 모두 홍경래 불사설의 흔적이 보인다. ‘홍경래’라고 써 붙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설화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 답을 상상한 것 자체가 드물면서도 흥미로운 사례일 수 있는데, <홍중래전>에서는 홍경래가 그간의 경험을 직접 진술하게 했다.

홍경래의 말을 듣는 사람은 홍중래이다. 홍중래는 ‘개혁’의 준비를 위해 중국을 돌아보다가 태평천국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석달개가 은거한 집에 들르는데, 그곳에서 석달개의 스승이 된 노년의 홍경래와 극적으로 만난다. 홍경래는 홍중래가 홍문거의 손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는다.²⁷⁾ ①은 두 조카를 데려와 소개한 뒤의 대화이며, ②는 열흘 정도 시간이 흘러 헤어질 때의 대화이다.

① 당시 디본영이 함락될 썩에 남문으로 나서니 갈 길이 남면(南面)이라. 선성님 썩으로 가서 수일 누(留)하며 관망하느디 총리가 차자오니, 가치 어영도(魚泳島)로 가는 어선을 타고 희상에 썩 잇다가, 안동(安東) 호인(胡人)의 비에 올났다 가 광풍에 표류(漂流)되어 등국(中國) 남방 오문(澳門)에 하륙(下陸)하여 점점 북진하는 것이 이곳 와서 나온 훈학(訓學)하고 총리는 룡업(農業)하며 실가(室家)을 두어 자식 두 기가 잇고, 불형이 수린(數年) 전 나올 바리고 불귀에 길노 만져 가고, 나만 잔명(殘命)을 악어(厄)까지 지니어었다. 불형동형(不幸中幸)인 것은, 달기 갖흔 데자(弟子)을 두어스니 약간 위로가 된다.²⁸⁾

② 경군(京軍)은 디본영을 진공(進攻)치 안코 무죄한 부녀와 어린것들을 도륙(屠戮)하니, … 눈으로 그 광경을 보는 나의 심장은 불이 붓는지 칼노 그웃는지 이지 못하고 나아가 그 어린것들과 갖치 죽으려 한즉, 김오기, 송현교가 붓들고 막으며 ‘부녀(婦女), 아동(兒童)의 원분(怨憤)을 위로하라면 권토동리(捲土重來)가 상칙이라’ 하기로 나도 권토동리를 결심하고, 그날 밤 남문으로 나서 남면(南面) 선성님 덕에 가 멧츨 누(留)하며 강계(江界) 디안(對岸)으로 가서 근거디(根據地)을 두고 강계포군(江界砲軍)을 소모(召募)하야 권토동리를 작당하고 형디(兄弟)가 안동(安東) 호인(胡人)의 어선에 올랐더니, 논디업는 북풍(北風)이 날어나 비가 표류(漂流)되어 오문(澳門) 탁륙(着陸)되니 일권(擘)부진(一蹶不振)이 나올 두

체포할 수 없었다거나 홍경래가 일곱 번씩이나 죽었다 살아났지만 일곱 번째는 죽고 말았다는 것이 그 개요이다.

27) 홍문거는 <홍경래전>에 등장하는 가공인물인데, 홍경래와 함께 정주성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홍중래는 흑우(黑鬮)가 고향이라고 밝히는데, 홍경래는 이때 홍문거의 후손임을 직감한다.

28) <홍중래전>, 56면.

고 닐음이라.²⁹⁾

들을 비교하면서 함께 살펴보자. 우선 ②의 앞부분에서는 정주성의 참상을 대면했던 심정과 함께 같이 죽지를 못하고 권토중래를 다짐해야 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잔인한 경군에 대한 분노를 품은 채 홍경래는 남문으로 빠져나와 백선생 댁에 숨었고, 며칠 뒤 동생 홍충래를 만나 그곳을 떠났다고 했다. 백선생은 <홍경래전>에 어릴 때의 스승으로 등장하는 초시 백시경일 것인데, 그 집이 있던 남면 부호는 실제로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①에서는 조기 어장으로 유명한 어영도(魚泳島)로 가서 중국인의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하게 되었다고 했고, ②에서는 강계 건너편 중국 땅에 권토중래를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려고 배에 올랐다가 표류하게 되었다고 했다. 요컨대 권토중래를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려 했으나 불운하게도 풍랑을 만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불가항력의 결과인 셈이다.

표류 끝에 도착한 곳은 남방 마카오[澳門]였다. 점차 북쪽으로 올라갔지만 결국 귀국하지 못했고, 홍경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홍충래는 농사지며 정착하게 되었다. 또 홍충래는 자식도 둘 두었지만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홍경래는 뛰어난 재질을 지닌 석달개를 제자로 거두었다.³⁰⁾ 당시 석달개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태평천국을 떠나 은거하고 있었으니, 제자 석달개의 개혁 또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요컨대 불운한 영웅의 실패담인 셈이다.

홍경래의 뜻을 계승하는 조직 즉 홍중래 일파의 활동은 작품 전반에 걸쳐 펼쳐진다. 많은 인물의 이야기가 때로는 교차하면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홍경래의 뜻을 계승하는 조직(회합)’에 초점을 맞춘다면 총 37장에 이르는 방대한 작품은 1장~11장, 12장~26장, 27장~37장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³¹⁾ 이는 회합의 결성, 회합의 활동 전개와 위기, 대안에 따른 활동의

29) <홍중래전>, 57면.

30) 홍경래의 표류 직후의 상황, 귀국하지 못했던 사정, 이후 10년 동안 중국 땅을 돌아보았던 일 등과 같은 보다 자세한 사정은 홍중래의 귀국 이후 회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로는 <홍중래전>, 72~73면의 회고담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기의 실패와 그로 인한 중국 정착이라는 개요는 그대로이다.

31) <홍경래전>의 구성을 1장~11장, 12장~22장, 23장~37장의 셋으로 나눠 분석한 사례도 있는데(이지영, 『반란에 대한 기억 혹은 기대』, 173면), 이는 옥피래의 죽음을 변곡점으로 이해

재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또한 홍중래 일파가 추구한 개혁 방법이 일차적으로는 대원군의 활용에 바탕을 둔 ‘권변’ 즉 기존 세력을 활용한 임기응변이며, 그것이 실패했을 때 내세운 개혁 방법은 ‘강력’ 즉 무력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회합의 결성은 과거(科擧)에서의 부당한 차별에 분노한 홍중래에 의해서 시도되는데, 여기에 함께 응시했던 오가구, 윤자형, 용재전, 김용대 등이 가담한다. 그렇지만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았기에 많은 인재를 이 회합에 끌어들이어야 했다. 인재 규합의 근거지는 정주 청정(淸亭)이었는데, 실제 청정은 이름난 유기(鑰器) 산지여서 인물과 재화가 넘쳐났다. 김용대, 용재전 등이 이곳에 살고 있었고, 의술을 익혀 명성을 쌓은 오가구는 지역의 유력자인 장침사의 며느리를 치료한 인연으로 이곳에 약국을 마련하게 된다. 오가구의 약국은 서북 인재들의 교류처이자 교육장이 되는데, 오가구는 약국에 ‘무상무하(無上無下), 일률평등(一律平等)’을 뜻하는 사제당(思齊堂)이라는 이름을 붙여 개혁의 목표를 직접 드러낸다.³²⁾ 무예가 뛰어난 궁양백이

한 결과로 짐작된다. 옥피래의 죽음은 대원군 몰락과 개혁 방법 변경의 계기가 되므로, 이러한 분석도 가능하다. 한편 <홍중래전> 원본의 서두 2면은 없어졌으므로 제1장의 제목은 확인할 수 없다. 또 일부 장의 제목에는 오자 또는 표기 형식의 차이가 보인다. 형식을 통일하여 정리한 장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황철수는 고향을 떠나고 김재호는 적서차별을 탄식한다. (2)吳家駒再受隣侮, 洪重來連舉鄉試. (3)洪重來西遊中原, 黃鐵秀東甌金嶺. (4)黃土嶺壯士打虎, 漆谷城豪傑發憤. (5)吳家駒專攻醫術, 林起虎猛(鬪)兇狼. (6)勸武亭豪傑落難, 思齊堂淑女買[賣]身. (7)洪重來橫斷易水, 李弘胄書狀北京. (8)徐念淳解法爭執, 洪重來無事還巢. (9)名士宴會清飛灘, 豪傑遊歷洛東江. (10)獨孤狼用武結交, 宋天柱買[賣]骨受侮. (11)獨孤狼遊玩刀山, 李生婦往復地藏. (12)花一綻繡幃結親, 弓兩百虎榜掛名. (13)海月招請弓兩百, 統制薦舉洪懷山. (14)節度使舉行小操, 大院君存問貴賓. (15)趙公叟初職隱[殿]山, 弓兩百再甌海月. (16)玉鬢佳人斷行凶悻, 紅裙英雄機贊機謀. (17)關西節度使大演, 清南水軍使行險. (18)布政門怒將援劍, 青石洞濶虎出戰. (19)梁先鋒得功班師, 文領將聞散喪氣. (20)玉皮內吼喝家夫, 林起虎岫強捕將. (21)李赫周極力排教, 白士傑嚴審汚吏. (22)林起虎逮捕不汗, 邊戎虎肅清胡匪. (23)元容大移職統制, 玉皮內奄忽黃泉. (24)李都事強迫雲峴, 尹典籍威脅大帥. (25)安州營尹喪初現, 江華島洋夷再犯. (26)大院君發怒退朝, 閔中殿挾貴擅權. (27)大同江玉姪[橋]遊船, 浮碧樓海月戲狼. (28)百祥樓京妓唱歌, 勸武亭村婦甌賞. (29)獨孤夫人傷氣, 清亭花娘吐典. (30)關西節度使病亡, 嶺東海防使謝狀. (31)大同江魚馬見笑, 竹洞宮火藥彈爆發. (32)飽裕餘將無謀, 饑寒逼迫軍失犯. (33)獨孤狼避身綠林, 林起虎破職還鄉. (34)虎清鎬經營舊業, 文奇金掠奪封物. (35)全海月引樞下鄉, 獨孤狼訪義閒遊. (36)李判書歡迎故人, 宋進士盛待義弟. (37)獨孤狼再恤禁軍, 李容稷重托大事.

32) <홍중래전>, 44면. “남북에 유명한 소년(少年)은 과로차(過路次)에 심방이 빈번하니 오가구의 약국 사랑이 밍상군(孟嘗君)의 양사헌(養士軒)이라. 보통 평민(平民)의 사랑에는 당호(堂號)가 없지만, 이 사랑은 약국 사랑인 고로 사제당(思齊堂)이란 현판(懸板)을 붙이니, 그

이곳에 온 뒤로는 인재들의 실력 또한 크게 성장한다.

인재 규합은 여행을 통해서도 시도된다. 먼저 홍중래가 중국 여행에 나서는데, ‘북조(北朝) 청나라의 대관들, ‘남조(南朝) 태평천국의 인재들과 인연을 맺고 재주를 인정받는다. 이들은 고구려 유민 출신인 왕사례(王思禮)에 견줄 만큼 홍중래의 재주를 아끼는데, 홍중래는 북조와 남조의 실상을 파악하고 장래를 예측한다. 이후 북진, 광동, 운남 등지를 거쳐 서안(西安), 낙양, 태원, 그리고 호북, 호남, 곡부, 양산박에 이르기까지 각지를 여행하는데, 특별한 인재를 만나지는 못했어도 태원 석가장에서 노년의 홍경래를 대면하는 기회를 얻었다. 인재 규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북경에 사신으로 온 서염순, 이홍주 등 조선 대관들과의 만남을 주목할 만한데, 8장과 9장에서 홍중래는 사신들이 가져온 현안의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재주를 인정받는다. 이 일은 장차 서울의 대관 가운데 후원자를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독고랑은 홍중래의 중국 여행담에 자극받아 삼남 여행에 나서는데, 먼저 안주에 들렀다가 함경도 덕원으로부터 철원, 영월, 영양, 안동, 풍기, 대구, 칠곡, 진주, 통영, 부여, 공주를 거쳐 청석령에 이른다. 여기에는 ‘황간의 호랑이’ 황철수가 도적 두목이 되어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있었는데, 독고랑은 황철수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인 전 경주 부윤 김상하, 겁간의 위기에 처한 이용극 부인을 돕는다. 이후 송천주와의 시비로 인해 자신이 처형될 처지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이용극 부인과 신관호[신현]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다. 독고랑의 여행은 결국 황철수, 김재호, 이용극과 그 부인, 김상하 부자, 신관호 형제 등과의 인연을 얻는 계기가 되는데, 이로부터 서북 인물과 충청도 및 서울 인물의 협력이 만들어지니 인재 규합을 위한 여행으로서도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홍중래 일파가 규합한 인재들의 본격적 활동은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홍중래와 오가구가 ‘권변’이라는 유희적 방도를 우선 실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권변이란 개혁의 의지가 있는 권력자를 활용하는 임기응변의 간접적 방식이자 ‘유희적 방도’이니, 이를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권력자에 접근하고 신임을 얻어야 할 것이다. 홍중래 일파가 개혁의 의지와 권력이 있다고 판단한 인물은 대원군이니, 그에게 접근하는 지름길

의미는 무상무하(無上無下)하고 일루[률]평등(一律平等)을 목표함이라.”

은 과거 급제일 수밖에 없다. 대원군 또한 12세의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바로 인재를 모으겠다는 의지에서 경과(慶科)를 베풀고 이듬해에는 식과를 실시하기로 한다. 청정 사제당 주변에서 실력을 연마한 서북 인물들이 빼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그런데 대원군과 그의 심복인 이경하는 서북 인물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다. 뛰어난 재주를 목격하고도 ‘서북물대용(西北勿大用)’의 원칙을 내세우니, 결국 문관은 등용하되 무인은 배척하는 방침을 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주경과 백사걸이 일찌감치 등용되어 간관으로 활약하는 반면, 공양백 등 무인들은 미관말직의 벼슬조차 얻지 못한다.

반전의 계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마련된다. 우선 서북 무인들은 절도사 원용대와 관찰사 박규수가 마련한 대연조(大演操)에서 크게 활약하고(17장), 병인양요에서는 패배의 위기를 극복하는 큰 전공을 세운다(18장, 19장). 이와 함께 옥피래는 대원군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서북 무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경하를 설득한다. 네 중군과 네 변장은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주경, 백사걸과 함께 오가구의 계획을 실천하는데,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괴롭히던 큰 도적들을 제압하는 공을 세우기도 한다. 삼척영장 임기호가 일지매와 그 배후의 양반들을 처형한 일, 육진 도영장 변수호가 해삼위로 갈 길을 빌려달라는 압록강 건너편 토비 왕모란 일당을 소탕한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³³⁾

‘권변’의 계획은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 홍중래 일파에게 호의적이던 원용대가 이직하고, 피래가 갑작스럽게 병사하면서 대원군을 움직여 ‘사색’을 제압하는 일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신미양요는 너무 일찍 끝나는 바람에 서북 무인들은 국정에 개입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대원군이 민중전에게 밀려나면서 권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데, 이경하는 처형되고 서북과 충청도의 문관들도 쫓겨난다. 네 사람의 중군 또한 후원을 잃어 활동이 어려워진다.

홍중래 일파는 어쩔 수 없이 ‘강력(強力)’ 즉 무력의 추구로 계획을 바꾸

33) 임기호와 변수호의 활약상은 22장에 나타나는데, 금강산에 숨은 도적을 찾아내 “생선 목 잘 으듯” 처형하는 장면이나 거짓 패배로 적을 협곡에 유인하여 전멸시키는 장면의 묘사는 상당히 상세하다.

게 된다. 우선 독고량은 김재호와의 논의를 거쳐 ‘금군 무휼’에 나선다. 월료(月料) 예매(豫賣)로 늘 곤궁에 시달리는 금군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니, 이는 금군의 무력을 이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셈이다. 그러나 ‘아라사의 작탄(炸彈)’을 이용하는 대원군의 무모한 반격과 무력 사용을 강하게 주장하던 김재호의 병사(病死)로 인해 ‘강력’의 계획 또한 난관에 빠진다. 대원군의 선동으로 일어난 임오군란은 독고량의 계획도 결실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열병을 앓다가 금군에 휩쓸린 독고량은 주모자로 몰리고, 대관을 죽이고 중전을 공격하려 한 죄까지 뒤집어쓴 채 달아나 도적의 우두머리가 된다. 일당으로 몰린 궁양백은 과감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다가 옥중에서 자결하고, 어대약과 마성한은 배신의 길을 택한다. ‘강력’의 동력이 없어진 셈이다.

그렇지만 <홍중래전>에서는 ‘개혁’의 시도를 여기서 마무리하지는 않는다. 독고량과 네 사람의 변장은 피편(彼便) 즉 국경 건너편인 훈춘으로 떠나 재기를 도모한다. 다만 홍중래와 오가구는 더 이상 개혁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니, 홍경래의 뜻을 계승하려는 회합은 그 수명을 다한 것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정주성을 떠나 재기를 도모하던 홍경래의 운명이 독고량 등에게도 다가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도 있을 법하다. <홍중래전>은 독고량이 이용극의 딸과 이용직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끝을 맺는데, 이 장면은 명문가의 양반과 서북 변방의 무인이 동등한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는 ‘일률평등’이라는 대의가 여전히 살아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서북 출신의 이민자 전낙청이 ‘홍중래 일과’를 등장시켜 상상한 19세기 역사의 결말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역사적 사건의 재해석과 활용

<홍중래전>이 상상된 역사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반에는 실제의 역사적 사건이 존재한다. 이미 실존 인물의 활용 또는 변형의 사례를 살펴 보았거니와, 역사적 사건 또한 재해석하면서 활용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다. 다만 장편의 작품에 포함된 수많은 사건을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장면의 사례를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장면은 홍경래의 난 이후 서북 지역의 상황을 다룬 부분이다. 홍중래는 노년의 홍경래를 만나 다음과 같이 고국의 상황을 전한다.

림진강 이남 사도(思潮)은 취성몽사(醉生夢死)이옵고, 랑서(兩西) 일터은 일층 더 참담하여 텅일(天日)을 볼 수 업습니다. 십여 년 전에 로빅로가 굴기(崛起)하여 기혁코져 {하엿으나} 을밀터(乙密臺) 사변으로 형탄극디(荊天棘地)가 되여 여간한 인물은 호홉하기도 불능이옵고, 또 구월산 루흥림(柳興廉)의 기혁이 이서스나 그 역(亦) 실패되고, 김남초, 리월립 등이 나서보아스나 실패로 다시 머리를 들어볼 수 업시 되엿습니다.³⁴⁾

임진강 이남은 흐리멍덩해져서 볼 것이 없고, 서북은 여러 차례의 개혁 시도가 이어졌으나 모두 실패하여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요지이다. ‘홍경래 불사설’이 널리 퍼지고 크고 작은 민란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언급된 인물들을 현재의 역사 기록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홍중래전> 여러 곳에서 언급된 ‘노백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궁양백 남매와 옥피래는 이 거사의 실패로 각기 부친을 잃었고, 서북의 부녀자들은 이 인물을 기리는 노래를 불렀다.³⁵⁾ 그럼에도 관련 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작가 전낙청을 포함한 홍경래의 후예들이 기대했을 법한 이 인물은, 적어도 현재 전하는 기록에서는 이름도 행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노백로와 함께 언급된 ‘유흥림’은 실존 인물이다. 유흥림(柳興廉)은 채희재(蔡喜載), 기덕우(奇德佑), 김응도(金應道) 등과 함께 황해도 일대에서 변란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은 오늘날 ‘해서역옥(海西逆獄)’으로 일컬어진다. 이들은 소현세자의 후손인 이명섭(李明燮)을 추대하기로 하고 변란을 도모했으나, 1851년에 약국을 하던 고성옥(高成旭)의 고변으로 인해 실

34) <홍중래전>, 56면.

35) 29장에서 감돌너가 부르는 <역사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을밀터(乙密臺)와 구월산(九月山)을 바라보며 로빅로와 루흥림(柳興廉)을 기억하니 / 사식편당(四色偏黨) 토멸(剽滅)하고 일률평등(一律平等) 그 흐[호]기가 지금까지 림름이라.”라는 구절이 보인다.

패하고 만다. 유홍림은 탈출하여 서수라(西水羅)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 했다거나 ‘약국’이 모의의 공간이 아닌 고변의 공간이 된다는 등의 차이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이 <홍중래전>을 상상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한 듯하다.

노백로나 유홍림을 거둬 입에 올리게 되면, 홍경래 이후에도 서북인의 ‘개혁’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진다. <홍중래전>의 서북 인물들처럼 ‘권변’이나 ‘강력’을 내세운 계책을 세우고 실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작가 전낙청은 포함한 서북인들은 그러한 흐름이 19세기 전반에 존재했거나 존재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을 법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장면은 병인양요의 원인과 전개를 다룬 부분이다. <홍중래전>에서는 이 사건을 ‘강화양란(江華洋亂)’으로 일컫는데, 서북의 무인들이 이때의 전공(戰功)으로 ‘사중군(四中軍)과 사변장(四邊將)’이 되니 작품 내적으로도 비중이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황철수는 자신을 따르던 도적들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데, 이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면서 죽어서나마 적서 차별의 원한을 풀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경하는 옥피래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편심(偏心)을 되돌아보게 되고, 대원군은 이때의 승리를 보며 지나친 자신감을 얻어 강경한 정책을 펴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사건의 원인은 역사 기록과는 달리 서술되고 있다. 대원군 선묘(先墓) 도굴 사건의 범인이 천주학 교도임이 밝혀져 천주교도 대살육이 벌어졌고, 목숨을 건져 달아난 영국 선교사의 호소에 따라 영국 제독 ‘우라저(Roze)’가 8척의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왔다는 것이 <홍중래전>에서 제시하는 개요이다.³⁷⁾ ‘대원군 선묘(先墓) 도굴 사건’은 독일인 오페르트가 주도한 ‘남연군(南延君) 묘 도굴 사건’일 것인데, 이 사건은 1868년에 일어났다. 이 사건 이후 충청도 지역의 천주교도들이 다수 처형되기도 했다. 그런데 로즈(Roze)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가 침입

36) 윤대원, 『19세기 변란 참가층의 사회적 관계망과 존재양태』, 『한국문화』 6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한편 노백로, 그리고 홍중래의 발인 속에 함께 언급되는 김남초, 이월렵도 실존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한 근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37) <홍중래전>, 157~158면. “우라저(Roze)”에서 “우”는 어두의 ‘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인데, 《신한민보》를 비롯한 당시 서북 출신 인물의 글에서 이러한 표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사건 즉 병인양요는 1866년에 일어났으니, 그것이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의 결과가 될 수는 없다.

<홍중래전>에서 ‘강화양란’의 원인을 실제로는 2년 뒤에 일어난 ‘대원군 선묘 도굴 사건’으로 설정했을까? 그것이 의도적인 허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³⁸⁾ 선후 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착각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여기서 우선 지적할 수 있다. 병인양요가 프랑스 신부 9명을 포함한 수천 명의 천주교인이 죽임을 당한 ‘병인박해’에서 탈출한 리델 신부 등의 요청을 계기로 일어난 사건이니, ‘프랑스 신부의 죽음과 탈출’이 직접적인 계기였다는 설정은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셈이다. 그렇다면 병인박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독교 신자이자 미주 이민자인 작가 전낙청의 입장에서는, ‘천주학 교도와 선교강사’를 살해할 만한 사건으로는 조상의 묘를 도굴하는 정도의 반윤리적인 범죄를 떠올려야 했을 법하다. 작품 내적으로는 ‘권변’의 대상이 될 만큼 개혁의 의지를 지닌 인물인 대원군의 성격 설정의 일환으로 이를 이해할 만한 여지도 있다. 단순한 착각인지 혹은 의도적인 설정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작품 내적으로는 ‘대원군 선묘 도굴 사건’이 ‘강화양란’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 설정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반면 1870년대에 벌어진 큰 사건인 신미양요와 강화도조약은, <홍중래전>에서는 병인양요에 비해 상당히 소략하게 다루어진다. 해당 부분의 분량도 많지 않지만, 급박한 전투나 갈등 상황에 대한 묘사 또한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신미양요의 경우에는 “경무(京武)” 즉 서울 무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강화 중군 어재연과 어영대장 어제담 형제의 분투와 전사 장면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자세히 서술되지는 않았다.³⁹⁾

다만 작품 내적인 논리에서는, 두 사건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신미양요와 강화도조약 사이에는 ‘고종의 친정’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놓여 있고, 따라서 두 사건은 ‘대원군의 섭정’과 ‘고종을 내세운 민중전의 정치’ 사이의

38) 이지영, 『반란에 대한 기억 혹은 기대』, 181면.

39) 어재연(魚在淵, 1823~1871)은 신미양요 때 순무중군(巡撫中軍)으로 참전했으며, 백의종군했던 동생 어제순(魚在淳)과 함께 광성진에서 전사했다. <홍중래전>에서는 어재연의 형 ‘어제담’을 등장시키는데, 어제담은 ‘노론 무인’ 가운데 손꼽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지만 가공 인물인 듯하다.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역사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홍중래전>에서는 두 사건으로부터 외침에 대한 ‘손쉬운 승리’와 외모(外侮)에 대한 ‘습관적인 굴종’을 끌어내고 있다.⁴⁰⁾

그렇다면 대원군과 ‘민중전’의 대립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두 사람 혹은 두 정치세력의 대립은, 대원군을 조종함으로써 민중전 세력을 제압하고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홍중래전>의 시각에서는 정세 또는 정치 전반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곳에서 두 사람의 대립 장면이 나타난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대조적이다. 대원군은 적어도 업적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그려지는데, 특히 서원 철폐, 남색 정치, 탐관오리 사책의 세 가지 큰 공적을 쌓았다고 서술된다. 물론 그 뒤에 이주경 등의 서북 인물이 있었으니, 홍중래 일파가 목표로 삼은 일들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반면에 민중전은 “관홍대도(寬弘大度)하거나 유한정정(幽閑貞靜)하지 못하고 권모술수(權謀術數)만 있는 인물” 즉 부덕(婦德)은 부족하고 모략에만 능한 인물로 그려진다.

두 사람의 갈등과 대결은 결국 대원군의 실권(失權)으로 이어진다. 역사서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홍중래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공방을 그 과정으로 제시한다. 계유년(1873)에 ‘민중전’이 대원군의 죄상을 성토하는데, 대원군이 과부인 한계원의 형수와 사통하고 정주 목사 이근수의 부인을 늑간(勒姦)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⁴¹⁾ <홍중래전>에서 한계원은 대원군의 심복이며 이근수는 대원군의 친족으로 등장하니, 민중전은 심각한 인물 도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분노한 대원군은 운현궁으로 떠나버리는데, 민중전은 곧바로 이경하를 비롯한 대원군의 심복들을 잡아들인다. ‘민중전’이 심각한 추문을 퍼뜨리거나 ‘대원군’이 스스로 권력을 버린다는 설정은 역사 기록에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대원군과 민중전’을 바라보던 <홍중래전> 내부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명료한 결론일 수도 있을 것이다.

40) 신현, 즉 신관호의 죽음을 병인양요 이전으로 설정한 점도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홍중래 일파에게 호의적인 무관인 신관호가 실제의 역사처럼 강화도조약의 체결에 관여한다면, 작품 내적으로는 그리 자연스러운 전개는 아니었을 듯하다.

41) <홍중래전>, 227~228면.

<홍중래전>에는 중국의 역사 또는 한중 관계의 역사도 일부 나타난다. 홍중래의 중국 여행에서 그려진 태평천국의 모습이나 조선과 청의 외교적 갈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작가가 이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신한민보』에 태평천국 후예를 다룬 기사가 실린 점을 고려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이민자인 작가에게도 있었을 법하다.⁴²⁾

홍중래는 중국을 여행하면서 북조(北朝)인 청나라를 거쳐 남조(南朝)인 태평천국에 들러 고관과 인재들을 만난다. 가공인물로 짐작되는 ‘문관 인재’ 손세소, 심언석과는 특히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⁴³⁾ 이수성과 석달개를 면담하면서는 실패의 원인을 깨닫는다. 홍중래는 어제(御弟)와의 불화로 인해 인재들이 떠난 데 원인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세소의 소기로 인각[仁玠]을 심방하니 그야말노 인형(人形)을 뒤집어쓴 금수(禽獸)라. 조에하천(阜隸下賤)도 안이이고 당당 태왕의 어더(御弟)로 금수(禽獸)도 형치 앓는 남색(男色)을 무소불위(無所不爲)로 기탄(忌憚) 업시 람행(濫行)하니, 이야말노 구역(驅逆)이라.⁴⁴⁾

“인각”은 홍수전의 족제(族弟) 홍인간(洪仁玠, 1822~1864)이다.⁴⁵⁾ <홍중래전>에서는 홍인간이 금수나 다름없는 인물로 지목되는데, 그 이유는 남색(男色)이다. 앞서 대원군의 업적으로 ‘남색 정치’를 들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홍인간은 <홍중래전>의 세계에서는 마땅히 정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일 것이다. 사실 홍인간이 남색을 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운데, 전 낙청은 어디선가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42) 이지영, 『반란에 대한 기억 혹은 기대』, 177면.

43) <오월화>의 이본에는 중국 여성 왕보교가 가문의 내력을 말하는 대목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선교사 모리스가 자신의 조부와 ‘심언석’을 피신시켰다고 하는 말이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전낙청은 적어도 심언석을 실존 인물로 알고 있었을 법하다. <오월화>(USC 소장 이본), 44면 참조.

44) <홍중래전>, 23면.

45) <홍중래전>에서는 일관되게 “인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玠’의 음을 ‘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홍인간은 홍수전의 족제이니 ‘어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태평천국 초기에 합류하지 못하며, 1859년에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천경(天京, 즉 남경)을 찾아와 합류하여 간왕(干王)에 봉해졌다. 홍인간은 <자정신편(資政新編)>을 써서 개혁안을 선보였는데, 이수성과는 크게 대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태평천국에서 실제 남색으로 유명했던 인물은 청왕(聽王) 진병문(陳炳文)인데, 홍중래는 진병문과도 만난다. 그 장소는 전장이다. 홍중래는 진병문과 청나라 장수 호림익(胡林翼)의 전투를 참관하는데, 진병문에게 기습 작전을 제안한다. 홍중래의 계략이 성공하여 호남을 회복하니, 진병문은 호기롭게 증국번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이 전투의 전개 과정은 역사 기록과 어긋나지만, 작가가 구체적인 전황과 전략을 말할 만큼 태평천국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

조선과 청의 외교적 갈등은, 홍중래가 중국에서 조선 사행을 만나 협력하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정사인 서염순은 청조(淸朝)에 제의할 세 가지 현안을 말하는데, ‘정계비 사건, 토비 왕모란 사건, 재가승 사건’이 그것이다. 홍중래는 이미 친분을 쌓았던 청나라 대신들을 설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청나라 대신들은 이를 통해 홍중래가 힘을 얻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도와준 것이라고는 하지만, 해결 과정은 단순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세 가지 현안이 19세기 조선의 대외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을 법하다는 점은 흥미롭다. 특히 백두산정계비 문제는 곧 간도 문제이며 토비 문제는 만주의 마적 문제이니, 당대의 현안임이 분명하다. 한편 토비 왕모란의 문제는 강계 방어사의 토벌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타결되는데, 이는 <홍중래전>에서는 변수호가 토비를 섬멸하여 명성을 얻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또 독고랑과 사변장(四邊將)이 ‘피편 경영’에 나서는 토대가 되기도 하니, 작품 내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설정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홍중래전>이 그려낸 19세기 역사는 독자에게 상당히 낯선 것일 수 있다. 홍중래가 죽지 않았고 홍경래 이후의 서북인들이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여 개혁을 시도한다는 개요 자체도 그러하지만, 기록된 역사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 기록과는 다른 삶과 활동을 보인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로서는 완전한 허구를 내세운 소설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러한 ‘역사(소설)’를 받아들이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놓은 최종적인 결과만 본다면, 병인양요로부터 갑신정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의 성패가 뒤바뀌지는 않았으니 완전한 오류는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다. 요컨대 ‘과정은 다르되 결과는 같은’ 역사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중래전>, 그리고 <홍중래전>이 그려낸 역사를 문학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디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전근대의 ‘연의(演義)’와 근대의 ‘대체 역사(alternate history)’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위치를 짐작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일 듯하다. 허구를 덧붙여 실제의 역사를 그려내는 ‘연의’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정 사건이 ‘달리 전개되었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루는 ‘대체 역사’에서는 결과가 바뀌기 마련이다. <홍중래전>에는 둘의 특성이 부분적으로나마 발견되는데, 그렇다면 둘 사이의 어디에서 우선 그 위치를 찾아보아야 할 법하다. 이때 작가 전낙청이 조선과 미국 생활을 경험했고 <구운몽>이나 <서상기>와 같은 고전적인 문학과 영화나 잡지와 같은 근대적인 미디어를 함께 향유했다는 점, 그리고 이 작품이 1920년대 미국에서 한글로 쓴 것이라는 점 또한 하나의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19세기 역사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상상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

한편 <홍중래전>이 서북 출신의 1세대 재미 한인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의 고국과 고향의 과거사를 상상한 것이라면, 그것이 작가의 현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민지에서 맞이하는 1920년대는 고국과 고향이 사라진 시대이며, 이때 상상된 <홍중래전>의 역사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예상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 서서 <홍중래전> 이후를 상상해 본다면, 홍중래 일파의 계획이 성공되는 미래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실제 다음 시대를 다룬 작품인 <부도>에는 ‘독고랑과 네 변장’의 소식이 나타나지 않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의술을 배필기도 하던 오가구가 궁양백의 죽음을 한탄하는 장면이 나타날 뿐이다.

반면 <홍중래전>에서 상상하던 일률평등의 세계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부단성의 극복’이라는 자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우선 이민지 미국이 <홍중래전>이 상상하던 ‘사제당’의 일률 평등의 정신이 적어도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이루어진 곳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구제적 강도>와 같은 작품을 통해 담아낸 일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미주의 ‘국민회’에 대한 비판적 논설에서 ‘약간 성공은 있지만, 대성공은 없다’라고 지적하며 부단성 극복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⁴⁶⁾ <홍중래전>에서 상상한 역사가 재미 한인의 현실과 공명하는 측면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46) 황재문, 『초기 재미 한인 문학과 변혁의 구상』, 70~71면.

참고문헌

1. 자료

『부도』(미국 USC 소장 원고본)

『홍경래전』(미국 USC 소장 원고본)

『홍중래전』(미국 USC 소장 원고본)

전낙청 저, 황재문 편역, 『구제적 강도: 전낙청 선집』, 소명출판, 2020.

2. 단행본

이시이 마사미 편, 최인학 역, 『1923년 조선 설화집』, 민속원, 2010.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월인, 1999.

3. 논문

윤대원, 『19세기 변란 참가층의 사회적 관계망과 존재양태』, 『한국문화』 6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215~247면.

이지영, 『20세기 미주 이민 서북인의 홍경래란에 대한 기억: 전낙청의 <홍경래전>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15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75~303면.

_____, 『반란에 대한 기억 혹은 기대』, 『고전과 해석』 26,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163~197면.

_____, 『20세기 초 미주 한인 소설에 나타난 판소리 관련 서술에 대한 고찰』, 『판소리 연구』 48, 판소리학회, 2019, 303~337면.

_____, 『20세기 초 미주 한인 소설 <부도>에 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8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271~296면.

전우형,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존: 미주 이민자 전낙청의 사랑에 관한 한 상상』, 『대중서사연구』 26-2, 대중서사학회, 2020, 191~219면.

정환국, 『홍경래란을 바라보는 시선』, 『동악어문학』 55, 동악어문학회, 2010, 5~37면.

황재문, 『<구제적 강도> 연구: 1세대 재미 한인의 체험과 문학적 혼중성』, 『춘원연구 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345~384면.

_____, 『초기 재미 한인 문학과 변혁의 구상: 전낙청의 <홍경래전>, <홍중래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43~79면.

_____, 『전낙청 문학에서의 ‘연애’의 의미』, 『한국학논집』 82,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21, 143~175면.

“Hongjungnae-jeon” as a 19th Century History Imagined
by the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

Hwang, Jae-moon

“Hongjungnae-jeon” is a full-length classical novel written in the 1920s by Nakchung Thun, a first-generation Korean American writer. This novel depicts Korean history from the end of Hong Gyeongnae’s rebellion to right after the Gapsin Coup, but this history is quite different from the actual history. Because it is an imagined history based on the assumptions that “if Hong Gyeongnae had not died” and “if an organization was created to succeed Hong Gyeongnae’s will,” it does not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history depicted in the same period. The way in which 19th century history is reimagined in “Hongjungnae-jeon” can be approached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 setting and arrangement. Since Hong Gyeongnae left Joseon after the failure of the rebellion and indirectly became involved in the Taiping Heavenly Kingdom in China, it was inevitable that there would be characters from the generation after Hong Gyeongnae who would lead the main narrative of the work. In “Hongjungnae-jeon,” in addition to Hong Jungnae, various characters with unique personalities who assisted him were introduced among the people of the northwest, and characters who could represent the social contradictions of Chungcheong Province were also introduced. The fact that fictional characters from Chungcheong Province were introduced as main characters is particularly noteworthy, as it is an aspect not seen in the previous work “Hongkyeongnae-Jeon.” Many of the grand officials of Seoul were real people, but sometimes their careers were changed.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women who were introduced as more active characters than men. In particular, Ok Pirae, who was called the ‘Hero in the red skirt’, is noteworthy as a new character type. Second, the reconstruction of history. Since “Hongjungnae-jeon” is a work composed based on two assumptions, the history

in the novel cannot help but be composed in two directions: the story of Hong Gyeongnae's later days and the story of the reformist group succeeding Hong Gyeongnae. The story of Hong Gyeongnae can be summarized as the attempt to establish a base for the second rebellion across the Amnok River but failure due to a storm, and the eventual failure to took Seok Dal-gae, a key figure in the Taiping Heavenly Kingdom in China, as his disciple and now spending his old age. The story of Hong Jungnae's group is composed in the order of the plan to gather talented people, utilize influential people with the will to reform, and the plan to use force. The third is the reinterpretation of actual historical events and their use in imagined history. In addition to historical events in Joseon such as the rebellions after Hong Gyeongnae, the Byeongin Yangyo, the Shinmi Yangyo, and the Ganghwa Treaty, it also utilizes foreign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Taiping Heavenly Kingdom and diplomatic issues between Joseon and Qing, and sometimes attempts a considerable amount of transformation. "Hongjungnae-jeon," which is completed as an imagined history, is understood to have a different process from the official history but the same result,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historical novel that partially has the characteristics of premodern 'Yeon-ui(演義)' and modern 'alternate history.'

Keywords : "Hongjungnae-jeon," Hong Gyeongnae, Hong Jungnae, Migration literature, Historical novel

접수일자: 2024. 9. 30.
 심사기간: 2024. 10. 1.~2024. 11. 10.
 게재결정: 2024. 11. 10.

